

碩士學位論文

濟州道 高等學校 3學年 學生의
政治態度 分析

-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韓 錫 祉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10631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姜 如 貞

2001年 8月

濟州道 高等學校 3學年 學生의 政治態度 分析

-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韓 錫 祉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姜 如 貞

姜如貞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1년 7월 일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長 印

< 국 문 초 록 >

濟州道 高等學校 3學年 學生의 政治態度 分析

-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姜 如 貞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韓 錫 祉

본 연구는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태도의 요소 중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 시민의무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체제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치교육에 대한 올바른 시사점을 얻으려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28명을 표집하여 미국 미시간 대학의 I.S.R의 질문지를 근간으로 한 설문지를 도구로 하여 정치태도를 측정하였다. 자료 처리는 부호화 작업을 거친 후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배경변인별 통계치 차이가 유의수준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F검증을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태도의 전반적인 양상은 정치지식과 시민의무감에서는 평균점수보다 높은 수준을, 정치효능감이나 정치참여감에서는 중간정도의 점수를, 정치신뢰감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었다.

성별, 거주지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성별과의 관련성을 보면 정치참여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

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치지식은 아버지가 공무원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학생그룹,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층에 속하고,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그룹, 정치참여감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학생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의무감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층인 학생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태도의 유형을 분류해본 결과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의(異議)의 정치태도를 나타내 정치체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매체로는 매스미디어, 교사, 부모 순으로 꼽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식과 의무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자세는 그리 높지 않아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기를 수 있는 다각적인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모든 정치태도의 구성요소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치교육은 공식적인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정치사회화의 노력이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대중매체는 모든 시민들이 민주적인 태도를 갖도록 정치사회화의 바른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학교에서도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비판적인 안목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그리고 국민의 복지에 바탕을 둔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정치태도의 개념과 접근법	4
2. 정치태도의 구성요소와 형성	9
3. 선행연구 분석	15
III. 연구 방법	19
1. 연구의 가설	19
2. 조사도구	19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21
IV. 연구결과 및 논의	24
1. 정치태도의 전반적인 양상	24
2. 정치태도의 유형 분석	32
3. 정치사회화 매체 분석	34
V. 요약 및 결론	37
참고 문헌	41
Abstract	44
부 록	46



표 목 차

표 1. 정치태도의 구성요소들	10
표 2. 질문지의 문항 및 구성내용	20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2
표 4. 정치지식의 수준과 배경변인별 차이	25
표 5. 정치효능감의 수준과 배경변인별 차이	26
표 6. 정치신뢰감의 수준과 배경변인별 차이	28
표 7. 정치참여감의 수준과 배경변인별 차이	29
표 8. 시민의무감의 수준과 배경변인별 차이	31
표 9.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갖는데 영향을 끼친 대상	34

그림 목 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small>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small>	
그림 1. 정치사회화 내용	5	
그림 2. 정치정향의 주요 차원들간의 관계	6	
그림 3. 정치태도의 4가지 유형	7	
그림 4.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태도 유형	32	

I . 서 론

민주주의는 서구문명의 발전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고, 국민들의 정치문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제 조건이 민주적 제도들과 상합하는 가운데 민주 정치의 안정적 발전이 이룩되어 왔다. 따라서 한 국가의 민주화 문제는 제도상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정치태도가 중요하며, 국민 각자가 그들 국가의 민주정치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제도가 앞서가고 정치문화가 그를 따르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므로 민주정치가 정착되려면 정치제도보다 정치문화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정치문화의 습득은 정치사회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¹⁾ 정치사회화란 정치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개인이 사회의 체제규준 및 정치적으로 관련된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²⁾ 하지만 정치사회화는 기존의 정치문화를 다음세대로 전달하는 보수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김규택은 적응과 전수라는 입장에서의 정치사회화는 안정이나 현상유지라는 정태적 개념에 국한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여 동태적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³⁾ 즉 정치사회화는 변화 그 자체까지도 포함하는 동태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사회화는 변화의 잠재적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각종 제도개혁을 통한 민주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개혁도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1) G. A. Almond and J. S. Coleman(1960),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pp.27~28.

2) 김재영(1982), 「정치사회화론」, 대왕사, p.24.

3) 김규택(1981), 「한국정치동태론」, 일조각, p.10.

변화가 함께 따라야 정치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의 정치문화 속에 사회화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정치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정치태도를 형성토록 하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사회화 과정은 일정한 연령에서 고정화되어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통해서 계속되는 과정으로 특히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개인의 정치적 정향이 어느 정도 확고한 것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⁴⁾ R. E. Dawson은 성인이되기 까지 정치적 자아는 충분히 발전되며, 정치세계에 관한 기초 정향의 대부분과 정치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습득된다고 하였다.⁵⁾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치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정치교육과 앞으로의 정치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정치세계에 관한 기초 정향과 정치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습득된 예비 정치행위자들인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떤 정치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치태도는 정치지식, 시민의무감,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을 살펴본다. 정치적 태도는 일면적인 것이 아니라 다면적,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성별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성별, 거주지별, 사회·경제적 배경을 사용하여 정치태도와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해보고, 이와 같은 정치태도의 형성은 어떤 매체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체제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태도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는 어떠하며, 성별, 지역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들의 정치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H. H. Hyman(1959), *Political Socialization*, The Free Press, pp.17~20.

5) R. E. Dawson 외(1977),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정세구 역(1981), 법문사, p.64.

둘째, J. M. Paige의 분류방법에 따르면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는 어떤 유형의 정치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학생들의 정치적 태도 형성에 있어서 어떤 사회화 매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약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치태도의 변인을 전부 다루지 못한 부분적인 연구가 되었다.

둘째, 척도로 사용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미국이나 다른 학자들의 기존연구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대로 원용하였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르고, 시대적 차이가 나는 제주도 학생들의 측정에 그대로 이용된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치태도의 개념과 접근법

정치태도의 개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정치문화, 정치정향, 정치성향, 정치의식, 정치신념 등 유사한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치정향이란 정치적 자극에 대해서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치적 대상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적 성향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정향과 비슷하게 정치의식이란 개념이 자주 사용되는데 의식이란 행동의 정향성을 선유하는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정치의식은 이성과 감성이 얽혀 형성되는 정치적 신념을 기저로 하는 한 심리적 사상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⁶⁾ 정치의식의 형성과정을 정치사회화라고 하며,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갖는 것을 정치문화라 한다. 정치문화라 함은 정치체계의 구성원들간에 정치에 관한 개인들의 태도나 정향의 유형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정치적 대상에 대한 국민적 정향을 말한다. 정치신념은 정치적 사고나 의식의 조직적 원리이다.⁷⁾

다음으로 정치태도의 개념을 보면, G. A Almond와 S. Verba는 정치적 태도를 정향이라 하여 “정향이란 정치체제 자체와 그 체제 속의 여러 대상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치체제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치 정향이 곧 정치체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⁸⁾임을 강조하고 있다.

D. D. Searing은 정치적 정향을 정치적 태도의 기초개념으로 보고 태도에 비하

6) 이성석(1994), “통치자의 정치정향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pp.10~11.

7) R. E. Lane,(1975), “Patterns of political beliefs. In J.W. Knutson(E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Jossy Bass Publishers, pp.83~85.

8)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1965), *The Civic Culture*, Little Brown and Company, pp.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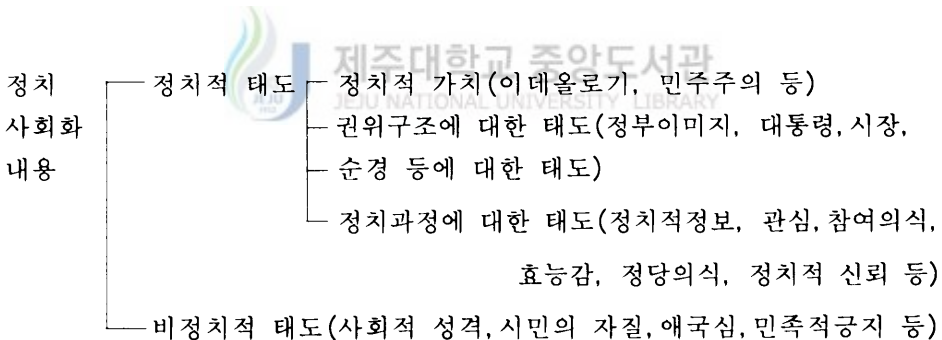
여 보다 중심적이거나 변화에 둔감한 부분을 말한다고 하였다.⁹⁾

D. T. Campbell은 정치태도란 정치대상 즉 정치체제, 역할 수행자, 투입과 산출, 정치참여에 대한 개인의 고유한 잠재적 경향이라고 하였다.¹⁰⁾

B. G. Massialas는 정치태도를 정치문화의 한 양태로 보고 정치질서에 대한 인지적 정향, 감정, 느낌이라고 정의하였다.¹¹⁾

김재영은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정치사회화의 내용을 정치적 태도와 비정치적 태도로 구분하여 <그림1>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태도에는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가치 등의 정치적 가치와 정부이미지, 대통령, 시장, 순경 등 권위구조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정보, 관심, 참여의식, 효능감, 정당의식, 정치적 신뢰 등의 정치과정에 대한 태도가 있다고 본다.

<그림 1> 정치사회화 내용



자료: 김재영(1982), 「정치사회화」, 대왕사, p. 174

김충남은 태도는 어떤 사회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감정적 구분, 그리고 찬반의 행동에 대한 지속적 체계로 보고 있다. 여기서 행동은 약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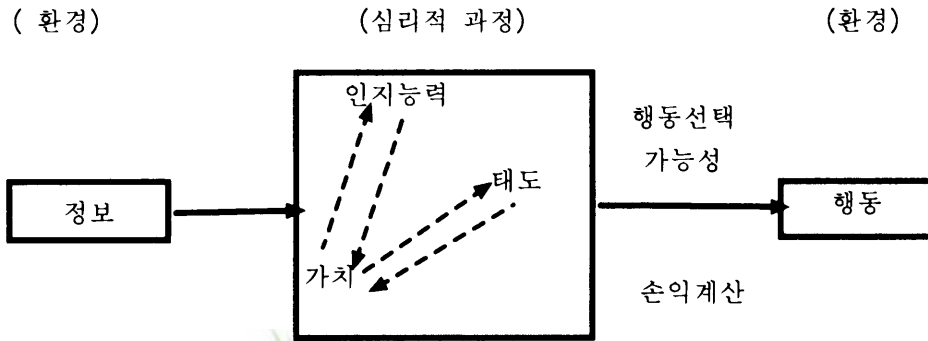
9) Donald D. Searing(1967), "The Structuring Principal: Political Socialization and Belief System",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7, No. June, pp.416~417.; 김재영(1982), 전제서, p.25에서 재인용

10) D. T. Campbell(1950), "The Indirect Assessment of Social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in*.No.47., p.15.

11) Byron G. Massialas(1969)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p.9.

위험한 대가를 포함한 반면 태도는 위험이나 대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서 다음의 <그림 2> 와 같이 정치정향의 주요 차원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 정치정향의 주요 차원들간의 관계



자료: 김충남(1982),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범문사, p. 38

이들의 관계에서 김충남은 정치적 태도는 정치적 정보, 인식능력 및 가치의 함수로 본다. 또한 정치적 행동은 행위자가 감지하는 정치적 행동선택에 대한 손익 판단과 정치적 태도와의 함수관계에 있다고 본다.¹²⁾

본 연구에서는 정치태도를 정치에 대한 개인의 고유한 잠재적 반응 경향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J. M. Paige는 정치체제의 투입과정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을 효능, 그리고 산출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가적 자세나 신임감을 신뢰라 보고 이들을 결합하여 <그림 3 >과 같이 4가지의 정치적 태도유형을 제시하였다.¹³⁾

12) 김충남(1982),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범문사, pp.38~39.

13) Jeffery M. Paige(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oi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6.Oct. pp. 811~813.

<그림 3 > 정치태도의 4가지 모형

	높음	신뢰	낮음
높음	忠誠의 정치태도 (민주적 체제)		異議의 정치태도 (불안정 체제)
효능			
낮음	從屬의 정치태도 (전통적 체제)		疎外の 정치태도 (전체주의적 체제)

자료: Jeffery M. Paige(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oi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6.Oct. p. 811.

첫째, 충성의 정치태도는 정치적 효능과 신뢰가 모두 높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정치태도이다. 이들은 정부 또는 그 체제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들은 현존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능동적인 지지자가 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능동적이지만 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를 갖는 정치체제에서는 민주적 체제가 형성된다.

둘째, 이의의 정치태도는 정치적 효능은 높으나 신뢰감이 낮은 사람들이 갖는 정치태도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다수인 정치체제는 불안정하기 쉽다. 이런 정치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부나 그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하며 또 그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체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진적인 행동이 야기되기 쉽다. 이러한 정치태도를 갖는 사람이 많은 정치체제는 불안정하기 쉽다.

셋째, 종속의 정치태도는 정치적 효능은 낮으나 높은 신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태도이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다고 믿고 있으나 그들의 욕구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하여 표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로 정치적 책임성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태도는 주로 전통적 정치체제에서 나타난다.

넷째, 소외의 정치태도는 정치적 효능이 낮으며 정치적 신뢰도 낮은 경우에 갖게 되는 정치태도이다. 이 같은 정치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존하는 정치체제를 믿지 못하는 상태이면서도 한편 정치적 관심이나 지식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급진적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정치란 위험한 것이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태도는 전체주의적 체제에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도 J. M. Paige가 제시한 정치적 태도의 유형의 틀을 사용하여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태도의 유형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정치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정치체제의 입장을 중시하는 체계적 접근법과 개인의 정치적 태도유형에 중점을 두는 개인적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¹⁴⁾

체계적 접근법의 중요한 입장은 개인의 정치적 태도의 차이점이나 유사성이 아니라 정치사회화를 정치체제의 한 과정으로 보고 정치체제의 영속화를 주된 관심사로 삼으며, 정치체제의 과정과 성격을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들을 보면, D. Easton의 일반체계론, G. A. Almond의 구조기능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시민이 정치체제에 갖는 정치적 정보와 가치, 태도와 기대의 형태가 정치체제의 운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전제하고, 성장과정의 시민을 특히 중시하면서 이들에게 알맞는 정치적 태도를 전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태도의 전수는 정치체제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적 접근법은 개인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관련된 태도를 습득하는가의 문제를 주로 개인의 사회적 환경과 퍼스낼러티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으로, H. H. Hyman, F. I. Greenstein 등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이들은 “언제, 왜, 어떻게, 개인은 그들의 특정한 정치적 정향을 습득하게 되느냐?”의 문제를 연구한다.

14) 김재영(1982), 전계서, pp. 41~51.

K. P. Langton은 이들의 구분은 인위적인 것에 불과하며 경험에 근거한 분석적 이론을 발전시키려면 오히려 양자의 결합된 초점을 찾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¹⁵⁾고 하였다. 이것은 두 차원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다루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양자의 입장을 접목시켜 환경적 변인과 정치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체제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정치태도의 구성요소와 형성

정치사회화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정치태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각 연구들은 분석하는 초점에 따라 정치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고, 이 요소들간에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견해도 많이 있었다.

여기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정치태도에 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정치태도의 구성요소를 학자별, 요인별로 취합, 정리한 자료를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¹⁶⁾

이 표에 의하면 정치태도와 관련하여 제시된 구성요소들을 보면 26개나 된다. 여기에서는 유사한 개념들도 많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빈도에 따라 순서대로 보면, ① 정치효능, ② 정치참여, ③ 정치신뢰, ④ 시민의무감, ⑤ 타국 또는 세계에 대한 관심 ⑥ 정치의식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구성요소 중에서 정치지식과 시민의 권리, 의무감등을 포함한 시민의무감, 정치체제 투입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신념, 정치 효능 등을 묶은 정치효능감, 정치체제 산출과정, 정치산출에 대한 신념, 정치신뢰 등을 묶은 정치신뢰감, 참여적 정향, 정치참여 등을 묶은 정치참여감을 채택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5) Kenneth P. Langton(1969), *Political Socialization*, Oxford Univ. Press, p.8.; 상계서, p. 50 에서 재인용

16) 김범식(1988), “스포츠를 통한 정치사회화가 국민정치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42.

〈표 2〉 정치태도의 구성요소들

학자 구성 요인	Alm- ond and Ver- ba	Pye and Ver- ba	Lan- gton and Jenn- ings	Mas- sia- las	Paige	이 화 수	김 규 택	유 중 해	정 세 구	유 기 숙	이 종 력	정 금 섭	소 은 옥	박 동 준	유 병 렬	계
국민적 정체감		○														1
시민의 일체감		○														1
정치체계	○															1
국민의식							○									1
국가정체감															○	1
국가기관에 대한 인식							○									1
시민의무감				○					○	○	○	○	○	○	○	8
시민적 관용			○													1
정치체계 투입과정	○															1
의사결정과정신념		○														1
정치효능			○	○	○	○	○	○	○	○	○	○	○	○	○	11
정치체계산출과정	○															1
정부산출의 신념		○														1
정치신뢰					○				○	○	○	○	○	○	○	8
정치참여				○				○	○	○	○	○	○	○	○	9
참여적 정향			○													1
정치적 합법성						○										1
정부의 성격							○									1
정치주체	○															1
정치지식				○												1
타국, 세계에의 관심				○					○							2
법에 대한 태도							○									1
정치인식								○								1
정치외식			○						○							2
시민의 권리									○							1
정치적 냉소			○													1

자료: 김범식(1988), “스포츠를 통한 정치사회화가 국민정치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42.

첫째, 정치적 지식이란 정치제도 즉 정치기구와 정치과정의 산출과정 및 투입과정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말한다. G. A. Almond와 S. Verba는 교육과 정치적 인식 및 참여사이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찾아냄으로서, 교육적 성취는 정치적 태도에 대하여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¹⁷⁾고 하면서, 정치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정치적 권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정치적 지식은 정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서와 평가의 기초가 되므로 정치적 태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어린이가 정치에 관한 일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대하여 상당한 연구가 행해져 왔는데, 주로 다른 정치적 지식은 정치적 지도자나 하위공무원인 순경 이외에 정치체계의 구조, 정부의 활동, 정당, 기타 단체와의 관련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 등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 활동, 선거의 의미, 시민의 역할, 그리고 현실정치에 대한 정보를 묻는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둘째, 시민 의무감은 한 개인이 정부에 대해 느끼는 법적 의무감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선거시의 투표행동이나, 법과 규칙에 대한 복종으로 표현된다. 또 그것은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견해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민의무는 투표 의무, 법률이나 법칙에 대한 복종, 다른 견해에 대한 순종 등을 의미하고 있다.¹⁹⁾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무감을 측정하기 위해 투표에의 참여 의무, 국가 정치에의 관심, 정치인 또는 공무원에 대한 의사표시 등을 묻는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셋째, 정치효능감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효능이란 개인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그것이 가능하리라 믿는 것을 말한다. K. Prewitt는 시민이 개인의 노력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협조로 그들이 바라던 바를 정부당국이 행하도록 하며

17)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er(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379.

18) 김재영(1983), 전계서, p.196.

19) Byron G. Massialas(1969), *Education and The Political System*,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p.5.; R. E. Dawson 외(1977), 전계서, 정세구역(1981), p.239에서 재인용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촉진 또는 저지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정치효능이라 하였다.²⁰⁾

D. Easton과 J. Dennis는 정치적 효능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인데, 즉 자신이 시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느낌이며 변화를 초래함에 있어서 개개시민이 한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D. Easton과 J. Dennis는 정치효능이란 신념 속에 포함된 요소를 ①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능력감 ② 개인의 욕구에 대한 정부의 관심에 대한 신념 ③ 정부의 이해 가능성에 대한 생각 ④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이용 가능성 ⑤ 정부가 지배자이든 피지배자이든 누구에게나 순응해야 한다는 숙명론에 대한 저항감이다.²¹⁾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이해가능성, 개인의 정치능력감,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이용가능성을 묻는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넷째, 정치신뢰감이란 정부 또는 체제에 대한 하나의 평가적 정향으로서 다시 말하면 정부 혹은 정부지도자에 대한 믿음이다.

J. M. Paige는 정치신뢰란 주로 산출 국면에 대한 정치적 정향으로서 신뢰점수가 높은 사람은 그가 정치적 투입과정에 참여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부가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편에서 활동한다고 믿을 것이라고 하였다.²²⁾

G. A. Almond와 S. Verba는 정치신뢰를 산출효과, 혹은, 정부관리들의 수준에 있는 처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의 한 종류라고 하였다.²³⁾

정치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이 정부정책 시행의 정당함과 지도자의 청렴결백에 대한 믿음, 국민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믿음, 정부 의사결정시의 국민이익과 의사존중에 대한 신뢰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20) Kenneth Prewitt(1968), "Political Efficac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ed. David Sills, New York Crowell, Collier and Macmillan, pp.225~228.

21) David Easton and Jack Dennis(1967),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1, pp.25~38.

22) Jeffery M. Paige(1971), *Op.cit.*, pp.810~820.

23) G. A. Almond & Sidney Verba(1963), *op.cit.*, p.62.

다섯째, 정치참여감을 살펴보면 정치참여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N. H. Nie와 S. Verba는 정치참여란 “정치지도자나 시민들이 정치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의 수단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합리적인 태도”라고 하였다.²⁴⁾ S. P. Huntington은 정치참여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시민들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⁵⁾

고로 정치참여란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정치적 집회에의 참가, 그리고 시위 운동 등과 같이 실제로 정치행위에 참가하거나 이를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은 정치참여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그의 욕구와 지지를 표시한다.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정치참여는 어떤 특별한 정치학적 의미를 지녔다기보다는 통상적인 용어로서 학생들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정치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정치참여라 했고 또 직접 참가하는 것만이 아니고 예기되는 참가도 여기에 속한다²⁶⁾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참여는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에의 참가, 성인과의 정치대화 참여태도,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정치문제에의 관심 표명,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선호태도 등을 묻는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태도들은 언제, 어떤 매체들을 통해 형성되는 것일까?

어린이기, 청년기, 성인기로 성장하면서 성장단계별로 각각 상이한 형태의 정치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어린이기에는 기초적이며 일반적인 정치적 태도가 습득되며, 청년기까지는 기본적인 정치적 사고가 형성되고, 성인기에는 더욱 세부적인 정치적 선택 또는 결정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진다.²⁷⁾

기본적인 정치태도는 아동의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한 개인의 정치적 자아의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숙은 고등학교시기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 고등학교생들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24) Norman H. Nie and Sidney Verba(1975), "Political Participation", *Handbooks of Political Science*, ed. by F.I.Greenstien and Nelson W.Polsby, Addison-Wesleg, p.1.

25) Samuel P. Huntington and Joan M. Nelson(1976), 「정치참여의 논리와 현실(*No Easy Choice*)」, 김학준역, 일조각, pp.4~5.

26) R. E. Dawson 외(1977), 전계서, 정세구역(1981), pp.233~248.

27) 김재영(1982), 전계서, pp.110~112.

학생들의 정치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대중매체를 들 수 있다.

가정은 사회화의 주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까닭은 아동들이 초기에 가지게 되는 경험이 후기에도 지워지지 않는 효과를 발생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가정은 어린이의 인격형성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장소이며, 정서적인 결합을 강하게 이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치적 정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수단이며 담당자이다.²⁸⁾ 그러므로 가정을 통한 유년기의 정치사회화는 정치적 태도와 행위의 틀을 형성하고 그 틀을 일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능을 발휘케 한다.

개인이 어떠한 정치적 태도를 갖느냐는 그가 자라난 가정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는 정치적 권위를 대표하며, 가정에서의 권위에 대한 경험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나중 정치체의 권위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받는다.²⁹⁾ 권위주의적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참여적인 시민보다 권위 추종적인 시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성장함에 따라 다른 집단이나 기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이다. 학교는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도구인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 교사의 영향, 학교 환경 등에 의해 사회화시키기 때문에 가정보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는 정치세계와 그 속에서의 역할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정치제도와외의 관계를 지각하게 하고, 사회의 합의를 이룬 가치와 태도를 전달한다.³⁰⁾ 즉 학교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시민을 양성하고 바람직한 정치질서를 주입시켜 주는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매체인 것이다.

민주적인 정치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학교가 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은 물론, 학교 내에서의 모든 인간관계가 민주적이고 참여적이어야 하겠다.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매체중의 또 하나가 동료집단이다. 사회가 발전되

28) 이극찬(1983), 「정치학」, 법문사, P.241.

29) 김운태 외(1985), 「한국정치론」, 박영사, p.195.

30) R. E. Dawson 외(1981), 전계서, 정세구역(1981), p.163.

고 산업화 및 도시화됨에 따라 가족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혹은 가정교육이 사회 환경과 조화가 안될 때 사회적, 직업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동료집단이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다.³¹⁾ 동료집단은 특히 청년초기에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 동료관계가 의의 있는 준거인물로서 부모나 교사를 대치하기 시작하며, 아동기에 일찍 얻어진 정향이 심각하게 도전 받거나 변경되고, 성인기에 새로운 정치적 관점이 획득되었을 때, 변화를 위한 자극은 가까운 친구의 변화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료집단은 청년기나 성인기의 정치 정향의 변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매카니즘 중의 하나로 본다.³²⁾

대중매체는 우리의 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통신매체의 기술적 향상과 확대, 그리고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같은 전통적 사회구조가 약화된 결과로서 대중매체는 정치적 태도의 형성자로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관되고 표준화된 정치적 정보와 가치를 보급하기 때문에 정치사회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특히 통제된 매스미디어 체제는 정치적 신념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으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경찰력만큼이나 중요한 지지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³³⁾ 매체는 직접, 간접으로 사회의 주요한 합의된 가치를 전해준다. 대중매체는 사회적, 정치적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정치적 가치관, 판단기준, 감정, 태도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3. 선행연구 분석

정치적 태도는 일면적인 것이 아니라 다면적,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영

31) 이동희(1986), 「정치학원론」, 일신사, p.213.

32) R. E. Dawson 외(1977), 전계서, 정세구역(1981), pp.179~180.

33) 이동희(1986), 전계서, p.215.

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성별에 따른 정치적 태도는 차이가 있을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정치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연구는 정치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 있다. R. D. Hess 와 J. V. Torney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³⁴⁾ 우리나라의 이화수도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반정부적이라고 하였다.³⁵⁾ 하지만 정세구는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국민학교에서 중학교에 이르면서 더 높은 정치효능을 보인다고 하면서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정치에 덜 참가적이고, 덜 비판적이라는 통념을 부인하고 있다.³⁶⁾

정치태도가 농촌지역과 도시에 따라 심한 격차가 나고 있음은 정치문화나 정치사회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L. W. Milbrath는 서로 다른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치관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정치사회화의 경험을 하기 쉽다고 하였다.³⁷⁾ 우리나라의 연구를 보면 도시는 정치적인 인지도나 정치효율감은 높으나 대단히 냉소적이며 정치불신감이 높고, 농촌지역일수록 도시민보다 냉소적이지 않으며 정치적인 인지도가 낮다고 한다.³⁸⁾ 이영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민은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비해 농촌주민은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있다고 한다.³⁹⁾ 거주지역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의 정치태도에도 영향을 끼쳐 농촌지역 학생보다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정치효능이 높다고 본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치태도와의 관련성 여부를 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효능감에서 D. Easton과 J. Dennis의 공동연구는 정치효율감은 상위

34) Robert D. Hess and Judith V. Torney(1968),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 in children*,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p.173.

35) Hwasoo Lee(1968), "A Study of Political Socialization Process: Political Efficacy and Legitimacy", *Koreana Quarterly*, Vol.10, p.186.

36) 정세구(1974), "초·중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의 발달:정치신뢰와 정치효능", 「한국교육」, 제1권 제2호, pp.32~33.

37) L. W. Milbrath(1965), *Political Participation: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Rand McNally,Chapter 5

38) 한배호, 어수영(1987), 「한국정치문화」, 법문사, pp. 147~168, 215~229.

39) 이영호(1979), "한국 농촌의 근대화와 정치문화의 변화 :4개 부락을 중심으로", 「논총」, 제34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pp.324~354.

층 자녀들이 하위층 자녀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내고 있다.⁴⁰⁾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 상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정치효능은 높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으로 갈수록 정부나 지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고,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정치신뢰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 상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신뢰감은 낮아진다고 했다.⁴¹⁾ 정세구도 고급공무원, 부장급이상의 회사간부, 교사, 의사, 변호사 등 높은 수준의 봉급생활자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를 가진 학생들이 가장 낮은 정치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⁴²⁾ 이를 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생들의 정치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치태도의 일반적인 양상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치지식과 시민의무감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참여감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은 일정치가 않았다.⁴³⁾

정치지식을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정치정보 획득량의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⁴⁾ Eugne Kim과 Hyong Yo는 중학교에 갈 때까지에는 헌법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알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식의 양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증대한다고 하였다.⁴⁵⁾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감을 보면 정세구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효능감도 높아진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반 이상의 학생이 투표 외에는 정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부의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⁴⁶⁾고 하였고,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계속 낮은 참여를 보인다고

40) Easton & Dennis(1967), *op.cit.*, p.35.

41) 이종렬(1977), "고등학교 학생의 정치태도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39.

42) R. E. Dawson 외(1977), 전계서, 정세구역(1981), p.226.

43) 상계서, p.221.

44) 김충남(1982), 전계서, p.96.

45) C.I.Eugene Kim and Hyong-Jin You(1969), "Political Socialization in Korea: A Polot Study.", 「한국정치학회보, 제3집, p.263.

46) 정세구(1974), 전계논문, p.28.

지적하였다.⁴⁷⁾ 이종렬도 학생들의 비교적 높은 정치효능을 지적하였고, 정치참여에 대하여는 중간이하로, 정치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하거나,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⁴⁸⁾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치신뢰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전성운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정부와 정부지도자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학년이 높아갈수록 더욱 냉소적인 방향으로 진전된다고 하였다.⁴⁹⁾ 정세구는 학생들이 정부지도자의 청렴결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⁵⁰⁾ 이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치신뢰감은 학년이 높아갈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시민의무감에 대해서 이종렬은 고등학생 전체로 보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⁵¹⁾ 정세구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가 시민의무감에서는 매우 높은 적극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⁵²⁾



47) R. E. Dawson 외(1977), 전계서, 정세구역(1981), p.231.

48) 이종렬(1977), 전계논문, pp.34~36.

49) 전성운(1972), “한국고등학교 학생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일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75.

50) R. E. Dawson 외(1977), 전계서, 정세구역(1981), p.220.

51) 이종렬(1977), 전계논문, p.50.

52) R. E. Dawson 외(1977), 전계서, 정세구역(1981), p. 220.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가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 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Ⅰ〉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태도는 정치지식, 정치 효능, 시민의무감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나, 정치신뢰, 정치참여의 수준은 낮을 것이다.

〈가설Ⅱ〉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 태도는 Paige의 4개의 유형 중 이의의 정치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가설Ⅲ〉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태도와 성별, 거주지 별, 사회·경제적 배경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Ⅳ〉 정치태도를 학습하는 매체 중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것은 가정이며, 다음이 학교일 것이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의 조사도구는 정치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였다. 변인으로서 는 정치지식, 시민의무감,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 정치참여감의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정치참여감에서는 5문항, 그리고 시민의무감, 정치신뢰감, 정치 효능감, 정치참여감은 4문항씩 16개의 문항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설문 내용들은 정치태도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미시간 대학 I.S.R(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의 질문지를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는 검증된 것이라 하겠다.⁵³⁾

정치지식에 관한 설문 내용은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인정받은 노인영의 ‘중,고등학생의 정치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인용⁵⁴⁾ 하여 지금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표 2>)

<표 2> 질문지의 문항 및 구성내용

구성요소	번호	문항 내용
정치지식	1	시민에 대한 이해
	2	국회의 역할
	3	선거의 이유
	4	집권정당
	5	국무총리이름
정치효능감	6	정부의 이해가능성
	7	개인의 정치능력감
	8	정치적 의견의 정책에 대한 반영
	9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이용가능성
정치신뢰감	10	정부정책 시행의 정당함
	11	국민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믿음
	12	지도자의 청렴결백에 대한 믿음
	13	정부 의사결정시의 국민이익과 의사존중에 대한 신뢰감
정치참여감	14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에의 참가
	15	성인과의 정치대화 참여태도
	16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정치문제에의 관심 표명
	17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선호태도
시민의무감	18	투표에의 참여 의무
	19	투표에의 참여 의무
	20	국가 정치에의 관심 의무
	21	정치인 또는 공무원에 대한 의사표시 의무
정치사회화매체	22	정치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친 매체 순위

53) 상계서, pp.237~238.

54) 노인영(1987), “중,고등학생의 정치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25.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대상은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제주시내 고등학교 중 남녀 각각 1개 학교와 서귀포시 고등학교 중 남녀 각각 1개교, 남제주군 지역의 고등학교 중 남녀 각각 1개 학교에서 2학급씩을 선정하였다. 북제주군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남녀 학교가 따로 없어서 남녀공학인 1개 학교에서 남녀 각각 2개 학급씩을 선정하였다. 성별로 나타나는 정치태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남녀 각각 같은 비율로 표집 하였으며, 지역별 차이를 밝히기 위해 제주도 행정구역에 따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있는 학교를 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은 시 지역을 의미하며, 남제주군, 북제주군 지역은 농촌지역을 의미한다. 최종적인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빈도분포로 제시하여 보면 < 표 3 >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을 거친 후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정치지식인 경우 5문항에 맞는 정답에는 1점, 맞지 않은 경우는 0점을 주어 5점 만점으로 처리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나머지 정치태도의 하위변인인 정치효능, 정치신뢰, 정치참여, 시민의무감에서는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척을 사용하여 4점 척도 하였다. “매우 그렇다”에 4점, “그런 편이다”에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어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단, 6번, 19번, 20번, 21번, 22번의 5개 문항은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이므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을 주어 점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정치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 9번은 2점 척도를 사용하여 그렇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을 부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정치지식의 경우는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 정치효능감은 최저 4점에서 최고 14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 시민의무감은 최저 4점에서 최고 16점이 나올 수 있었다.

< 표 3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사례수	%
성별	남자	317	50.5
	여자	311	49.5
	Total	628	100.0
거주지역	제주시	238	37.9
	서귀포시	108	17.2
	남군	191	30.4
	북군	91	14.5
	Total	628	100.0
생활수준	상	44	7.1
	중	477	76.6
	하	102	16.4
	Total	623	100.0
부학력	중졸이하	99	17.0
	고졸	363	62.5
	대졸이상	119	20.5
	Total	581	100.0
부직업	사무,전문직	148	24.5
	자영업	124	20.5
	농임수산업	210	34.8
	기타	122	20.2
	Total	604	100.0
부연령	40대 이하	386	63.8
	50대 이상	219	36.2
	Total	605	100.0
가정만족	만족	442	71.2
	불만족	179	28.8
	Total	621	100.0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수(성별, 연령, 가정의 사회적 지위 만족도)에 따른 정치태도(정치지

식,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 시민의무감)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검증하였다.

둘째, 배경변수(거주지역, 가정의 경제수준,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정치태도(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 시민의무감)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정치태도의 각 요소별로 전체 평균을 산출하였다.⁵⁵⁾



55) 각 요소별 평균치를 보면 정치지식인 경우는 2.5, 정치효능은 7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 시민의무감은 8점이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 시민의무감의 수준과 성별, 지역별, 사회·경제적 배경변인(가정의 경제수준,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연령, 가정의 사회적 지위 만족도)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Paige의 분류에 따라 정치태도 유형을 분류하여 보겠다. 그리고 정치적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친 매체에 대한 순위별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1. 정치태도의 전반적인 양상

1) 정치지식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지식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지식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정치지식에서 지식이 높은 집단을 보면 남학생, 아버지의 연령이 50대 이상,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고, 제주시에 거주하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간층이고,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이고,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생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면, 아버지의 학력별과 직업별에 따른 정치지식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그 외 배경변수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무의미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인 고 3학생들의 정치지식은 아버지가 공무원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치적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한다고 한다.⁵⁶⁾ 본 연구의 결과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문제20. 국민들은 나라의 정치형편을 잘 모르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그렇다	6	1.0
	그런 편이다	45	7.2
	별로 그렇지 않다	204	32.5
	전혀 그렇지 않다	372	59.3
	Total	627	100.0

문제21. “국민들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말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그렇다	35	5.6
	그런 편이다	83	13.2
	별로 그렇지 않다	179	28.5
	전혀 그렇지 않다	330	52.6
	Total	627	100.0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지식과 정치에 대한 논의가 많으며, 이는 자녀들의 정치지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4 > 정치지식의 수준과 배경변인별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F	
성별	남학생	303	3.3729	1.3233	1.457	
	여학생	288	3.2188	1.2455		
거주지역	제주시	223	3.3767	1.2705	0.828	
	서귀포시	100	3.3500	1.3512		
	북제주군	181	3.2431	1.2678		
	남제주군	87	3.1494	1.2987		
사회·경제적 배경	아버지의 연령	40대 이하	362	3.2762	1.3172	0.769
		50대 이상	207	3.3623	1.2264	
	가정의 경제수준	상층	42	3.2381	1.4785	1.179
		중간층	446	3.3453	1.2567	
		하층	99	3.1313	1.3221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94	3.1383	1.1968	5.125**
		고졸	343	3.2770	1.3231	
		대졸 이상	110	3.6636	1.1830	
	아버지의 직업	공무원, 전문직	138	3.4130	1.2599	2.645*
		회사원	121	3.5455	1.1832	
		자영업	196	3.1939	1.2823	
		농임축수산업	114	3.1754	1.3583	
	가정의 사회적 지위 만족여부	만족	416	3.3606	1.2667	1.500
		불만족	168	3.1845	1.3252	
전체평균점수			3.6036			

*: $p < .05$, ** : $p < .01$

주) t: 배경변수의 집단이 두 개인 집단을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통해 분석, 검증한 내용이다.

F: 배경변수의 집단이 세 개 이상인 집단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한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한 내용이다.

가정의 경제수준: 설문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경제수준을 이용하였다.

정치지식의 전반적인 수준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치지식의 수준이 높게 나타

56) R. E. Dawson 외(1977), 전게서, 정세구역(1981), p.161.

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도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성별과 지역별에 따른 뚜렷한 차는 찾아볼 수 없었다.

2) 정치효능감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효능감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적인 정치효능감은 중간정도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5 > 정치효능감의 수준과 배경변인별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F	
성별	남학생	315	7.1397	1.7538	1.423	
	여학생	305	7.3180	1.3453		
거주지역	제주시	236	7.2203	1.4682	0.128	
	서귀포시	106	7.2453	1.5905		
	북제주군	188	7.2660	1.6878		
	남제주군	90	7.1444	1.5547		
사회·경제적 배경	아버지의 연령	40대 이하	380	7.2895	1.5883	0.967
		50대 이상	217	7.1613	1.5052	
	가정의 경제수준	상층	42	7.8095	1.8245	7.506**
		중간층	473	7.2748	1.5156	
		하층	100	6.7700	1.6071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98	7.1837	1.5555	0.748
		고졸	357	7.2157	1.5180	
		대졸 이상	119	7.4034	1.6941	
	아버지의 직업	공무원,전문직	145	7.2897	1.6993	2.407
		회사원	123	7.1951	1.4410	
		자영업	207	7.4106	1.5170	
		농임축수산업	121	6.9421	1.5291	
	가정의 사회적 지위 만족여부	만족	438	7.3128	1.5765	2.044*
		불만족	177	7.0282	1.5279	
전체평균점수			7.2271			

*: $p < .05$, **: $p < .01$

배경변인별로 보면, 여학생, 북제주군지역학생, 아버지의 연령이 40대 이하인 집단, 경제수준이 상층인 학생집단과,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 아버지의

직업이 자영업인 학생집단,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고 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정치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배경변인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와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효능감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층에 속하고,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학년일수록 높은 효능감을 갖는다고 지적되지만,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효능감은 평균점수 수준으로 그다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성별이나 지역별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고 있다. 상류층 가정의 학생일수록 정치세계에 대한 관심과 큰 효능감을 보이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경제적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정부나 지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3) 정치신뢰감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신뢰감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신뢰감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배경변인 별로 보면 여학생이, 그리고 서귀포시지역, 아버지의 연령이 40대 이하, 경제수준이 상층인 집단,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집단, 아버지의 직업이 자영업인 집단과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고 있는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에서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큼 유의미함을 보이고 있는 배경변수는 가정의 경제수준과 가정의 사회적 지위 만족도에서이며, 나머지는 의미 있는 차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신뢰감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층에 속하고,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 정치신뢰감의 수준과 배경변인별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F	
성별	남학생	316	6.6994	2.0162	0.031	
	여학생	304	6.7039	1.6242		
거주지역	제주시	237	6.5992	1.8582	1.465	
	서귀포시	105	7.0095	1.8734		
	북제주군	187	6.7326	1.8060		
	남제주군	91	6.5495	1.7592		
사회·경제적 배경	아버지의 연령	40대 이하	381	6.7559	1.8298	0.699
		50대 이상	218	6.6468	1.8539	
	가정의 경제수준	상층	43	7.5581	2.8310	6.422**
		중간층	472	6.6949	1.7229	
		하층	100	6.3700	1.7213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99	6.5152	1.6925	0.809
		고졸	358	6.7737	1.8476	
		대졸 이상	117	6.7265	1.6949	
	아버지의 직업	공무원, 전문직	144	6.6806	1.7205	1.144
		회사원	124	6.7177	1.7182	
		자영업	208	6.8317	1.8742	
		농임축수산업	121	6.4545	1.7889	
	가정의 사회적 지위 만족여부	만족	436	6.8739	1.8533	3.267**
		불만족	177	6.3446	1.7254	
전체평균점수			6.7053			

*: $p < .05$, **: $p < .01$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신뢰도의 점수가 낮게 나오는 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치신뢰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통한다. 그러나 정치사회화 연구들을 보면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상으로 갈수록 정치신뢰도는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르게 오히려 정치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경우 경제적 혜택을 많이 받은 층의 학생이 현실에 만족하고 높은 신뢰감을 가지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수록 학생들이 불신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정치참여감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참여감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적인 정치참여감은 평균점수대로 나오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여학생, 제주시지역의 학생, 아버지의 연령이 50대 이상인 집단,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층인 집단,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 전문직인 집단,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고 있는 집단에서 정치참여감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통계상 신뢰할 수 있는 변인은 성별과 가정의 경제수준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정치참여감이다.

<표 7 > 정치참여감의 수준과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F	
성별	남학생	317	8.5710	2.2945	2.779*	
	여학생	306	9.0686	2.1710		
거주지역	제주시	237	9.0380	2.3638	1.443	
	서귀포시	105	8.8190	2.1021		
	북제주군	190	8.6316	2.2185		
	남제주군	91	8.6154	2.1332		
사회·경제적 배경	아버지의 연령	40대 이하	383	8.7546	2.1833	1.300
		50대 이상	218	9.0000	2.2961	
	가정의 경제수준	상층	43	9.0698	2.6222	5.164**
		중간층	475	8.9347	2.2023	
		하층	100	8.1700	2.1558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98	8.7041	2.2439	3.452*
		고졸	361	8.7064	2.1595	
		대졸 이상	117	9.3077	2.3395	
	아버지의 직업	공무원, 전문직	146	8.9932	2.2999	1.385
		회사원	124	8.9677	2.2231	
		자영업	207	8.8406	2.1015	
		농임축수산업	122	8.4918	2.2462	
가정의 사회적 지위 만족여부	만족	439	8.8565	2.1959	0.695	
	불만족	177	8.7175	2.3620		
전체평균점수			8.8154			

*: p < .05, ** : p < .01

따라서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정치참여감이 높다.

정치참여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참여감은 평균점수대로서 중간이하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다. 이 점은 역대의 선거에서 다른 지방보다 투표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과 일치하고 있었다.⁵⁷⁾

그리고 정치참여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치적 의견을 활발하게 표명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다른 결과라 하겠다. 이는 제주도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적 특질이 요구되었는데⁵⁸⁾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효능감이나 정치신뢰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참여감에서도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 수록 경제적 혜택을 많이 받아 현실에 만족적이고, 높은 신뢰감을 가지며, 정치문제에 관여하려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교육은 현대와 같은 개방사회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확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참여에서 아버지의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보면 교육정도가 높을 때 정치지식 또한 대체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높은 지식은 정치적 참여태도를 낳고, 이러한 태도가 자녀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5) 시민의무감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시민의무감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

57) 김석준(1998), "제주지역에서의 선거", 「제주사회론2」, 신행철 외 지음, 한울아카데미, pp.70~71.

58) 김혜숙(1998), "가족의 성격을 통해서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여성을 중심으로", 상계서, pp.418~419.

표 8>과 같다.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시민의무감은 다른 정치태도의 요소들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무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8 > 시민의무감의 수준과 배경변인별 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F	
성별	남학생	315	13.4635	2.0676	1.569	
	여학생	307	13.7134	1.8967		
거주지역	제주시	234	13.5299	1.9304	1.744	
	서귀포시	108	13.4074	2.1358		
	북제주군	190	13.5579	2.0533		
	남제주군	90	14.0111	1.7705		
사회· 경제적 배경	아버지의 연령	40대 이하	383	13.5170	1.9614	1.445
		50대 이상	217	13.7604	2.0179	
	가정의 경제수준	상층	42	12.5000	2.8133	7.305**
		중간층	475	13.6337	1.8995	
		하층	101	13.8317	1.8765	
	아버지의 학력	중졸 이하	99	13.4141	1.9326	2.058
		고졸	358	13.5447	1.9766	
		대졸 이상	119	13.9076	1.9178	
	아버지의 직업	공무원, 전문직	147	13.4898	1.9632	1.732
		회사원	123	13.4634	1.9514	
		자영업	209	13.8756	1.9645	
		농림축수산업	120	13.5500	1.8869	
	가정의 사회적 지위 만족여부	만족	439	13.5604	2.0730	0.469
		불만족	177	13.6384	1.7819	
전체평균점수		622	13.5868			

*: p < .05, ** : p < .01

배경변인별로 보면 여학생, 남제주군, 아버지의 연령이 50대 이상인 집단,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층인 집단,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 아버지의 직업이 자영업인 집단, 가정의 사회적 지위 만족 여부에서 불만족한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변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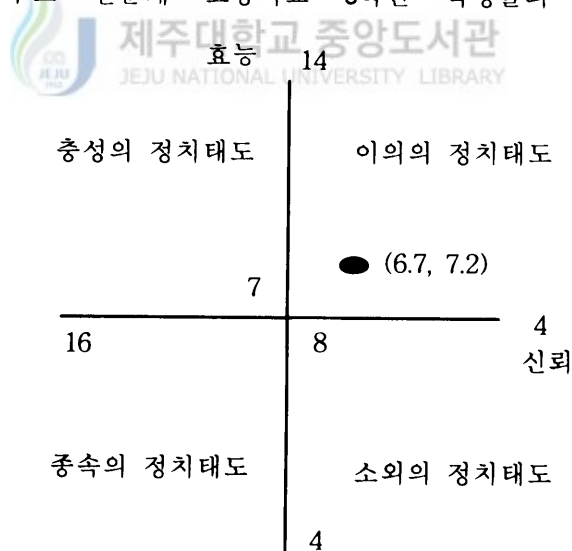
가정의 경제수준이다. 즉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층인 학생들의 시민의무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경제수준이 하층일수록 시민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2. 정치태도 유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의 정도를 좌표에 표시하여 보면 <그림 4>와 같다.

결과를 보면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의 유형은 이의의 정치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태도 유형



연구와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국민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의 학생집단과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태도를 연구한 것들이 있다.

정세구는 1974년 국민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학년별로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조사하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정치적 태도가 어떻게 변해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민학생들의 전체적인 태도는 순종의 정치태도 쪽으로 기울어지게 나타나고 있었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국민학생보다 정치효능감이 높아져 전체적인 태도는 충성의 태도에 속한다고 보았다. 59)

이종렬은 고등학생들의 정치태도 발달 연구에서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통해 볼 때 정치효능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고, 정치신뢰는 중간으로 충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정치신뢰의 점수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낮아진다고 보아 점차 이의의 정치적 태도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태도는 이의의 정치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정치적 태도는 급진적 정치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치체제는 불안정적이기 쉽다고 했다. 60)

최충규는 서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태도를 조사한 결과 그들의 정치적 효능감은 중학생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으나 정치신뢰는 농민의 경우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 그들의 전체적인 정치태도는 이의의 정치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61)

안병만은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정치태도를 연구하였는데, 농촌주민의 정치태도는 정치효능감이나 신뢰감에서 다 낮게 나와 소외의 정치태도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62)

본 연구에서의 결과도 선행연구들의 흐름과 일치하고 있다. 이의의 정치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나 그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하며 또 그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체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진적인 행동이 야기되기 쉽다. 이러한 정치태도를 갖는 사람이 많은 정치체제는 불안정하기 쉽다.

59) 정세구(1974), 전제논문, p.31.

60) 이종렬(1977), 전제논문, pp.42~44.

61) 최충규(1983), "한국 대학생의 정치정향과 정치참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p.40.

62) 안병만(1985),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p.373.

3. 정치사회화 매체의 분석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그들의 정치에 대한 생각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 매체를 순위로 3순위까지 제시해 보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에서는 첫 번째가 매스미디어, 두 번째가 부모, 세 번째가 교사로 나타났다. 2순위 중에서는 첫 번째가 교사, 두 번째가 부모, 세 번째가 매스미디어로 나타났다. 3순위 중에서는 첫 번째가 부모, 두 번째가 동료집단, 세 번째가 교사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들을 합쳐 평균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본 결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매스미디어, 그 다음이 교사, 부모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9 >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갖는 데 영향을 끼친 대상

(단위 : 명, %, 점수)

	1순위	2순위	3순위	평균
부모	78(12.5)	167(27.7)	200(33.8)	1.23
교사	64(10.3)	256(42.5)	141(23.9)	1.36
매스미디어	460(73.8)	92(15.3)	40(6.8)	2.57
동료집단	20(3.2)	66(10.9)	147(24.9)	0.54
기타	1(0.2)	22(3.6)	63(10.7)	0.18
계	623(100.0)	603(100.0)	591(100.0)	-

주) 평균은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대상 1순위에는 3점, 2순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주어 계산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3이 되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가정,

학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강해짐을 알 수 있다.

가정의 영향력은 1순위에서는 세 번째, 2순위에서는 두 번째, 전체 순위에서는 세 번째로 나와 가정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는 1순위에서는 세 번째, 2순위에서는 첫 번째, 전체평균에서는 두 번째로 나왔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보면 1순위에서는 첫 번째, 2순위에서는 세 번째, 전체 평균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사회화 매개체들의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김재영은 정치사회화 초기과정에서 가정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학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대개 누구로부터 많이 듣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언론매체(73.23%), 부모형제(12.17%), 교사(11.12%), 친구(1.5%)순으로 나타남에 미루어, 가정과 학교의 영향력이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⁶³⁾ 진덕규는 한국의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가정이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의 가정은 정치에 대한 대화에서 학습에 영향을 줄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는 교육기관, 가정 및 각종 단체의 영향력보다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거의 일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신문이 가장 큰 정치정보 획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했다.⁶⁴⁾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최근의 연구경향과 일치한다.

대중매체는 이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통신매체가 완전히 국가에 의해 장악되지만, 자유국가들도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자유에 다소간의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⁶⁵⁾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은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

63) 김재영(1982), 전제서, pp.272~292.

64) 진덕규(1971),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상황적 제요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논총>, 제1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pp.457~458.

65) 김운태(1981), 「정치학 원론」, 박영사, p.254.

다는, 현존의 것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대중매체에 대한 반응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의하여 영향이 결정된다고 한다.⁶⁶⁾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것들에 대한 비판적, 선택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영호는 한국에서의 학교와 대중매체는 완전히 탈권위주의적이며, 탈전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치사회화 과정에 새로운 또는 혁신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⁶⁷⁾

따라서 한국의 대중매체들은 국민들에게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정치태도를 길러 주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도 교육내용 뿐 만 아니라 교육방법에서 민주적이어야만 우리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정치변화의 매개체로서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6) R. E. Dawson 외(1977), 전계서, 정세구역(1981), pp.191.~192.

67) 김운태 외(1985), 전계서, p.209.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기에 이루어진 사회화보다 개인의 정치적 정향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정착되어가고 있고, 얼마 없어 직접적인 정치행위자로서 활동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치태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성별, 지역별,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정치태도는 어떤 환경과 상호관련이 깊은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치태도의 형성은 어떤 매체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체제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정치태도의 요소 중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 정치참여감, 시민의무감의 요소를 중심으로 각 요소의 수준과 성별, 거주지별, 사회·경제적 배경간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각 변인이 정치태도에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발견하려 하였다. 정치사회화 매체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한 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순위별로 제시토록 해 학생들이 어떤 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Ⅰ〉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태도는 정치지식, 정치효능, 시민의무감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나, 정치신뢰, 정치참여의 수준은 낮을 것이다.

〈가설Ⅱ〉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 태도는 J. M. Paige의 4개의 유형 중 이의의 정치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가설Ⅲ〉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태도와 성별, 거주지별, 사회·경제적 배경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Ⅳ〉 정치태도를 학습하는 매체 중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것은 가정이며, 다음이 학교일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치태도 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국 미시간 대학 I.S.R의 정치태도에 대한 질문지를 근간으로 하고, 선행연구 논문을 활용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가설 I의 검증결과 정치지식의 수준은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정치신뢰감은 평균점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감은 평균점수 수준에서 나타났다. 시민의무감은 다른 요소들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가설 I 중 정치지식과 시민의무감은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정치신뢰는 낮을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II의 검증결과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 유형은 정치신뢰감이 낮고 정치효능감이 높은 이의의 정치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가설 II는 채택되었다.

가설 III의 검증결과 정치지식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인 중 아버지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생이 정치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효능감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인 중 가정의 경제수준과 가정의 사회적 지위 만족 여부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의 정치효능감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신뢰감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인 중 가정의 경제수준과 가정의 사회적 지위 만족 여부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층으로 갈수록,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정치신뢰감이 높게 나오고 있었다. 정치참여감에서는 성별과 사회·경제적 변인 중 가정의 경제수준과 아버지의 학력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여학생이 정치참여감에서는 남학생보다 높게 나오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층으로 갈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감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시민의무감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인 중 가정의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발견되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층으로 갈수록 시민의무감에 투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III 중 성별, 사회·경제적 변인과 정치태도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으나 지역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설 IV의 검증결과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갖는데 영향을 끼친 대상 순

위의 평균점수를 보면 매스미디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학교, 부모 순으로 나타나 가설 IV는 거부되었다.

이와 같은 가설검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정치지식과 시민의무에서는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정치효능감이나 정치참여에서는 중간정도의 점수를, 정치신뢰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었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지식과 의무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자세, 효능감등은 그리 높지 않아 정치교육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정치사회화는 정치문화의 적응과 전수라는 기능 뿐 만 아니라 정치변화까지도 포함하는 동태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민주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다각적인 학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민주적인 태도로의 변화는 교육내용 뿐 만 아니라 교육방법이 민주적이고 참여적일 때 가능하다.

둘째,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 유형은 이의의 정치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정치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나 그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무엇인가 변화시킬 수 있는 급진적인 행동이 야기되기 쉽다. 이 결과로 보면 우리의 정치체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낮은 신뢰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그리고 국민의 복지에 바탕을 둔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성별, 거주지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지식은 아버지가 공무원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치효능감, 정치신뢰감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층에 속하고,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정치참여감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경제적 혜택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현실 만족적이고 신뢰감, 정치문제에 관여하려는 효능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참여감이 높았다. 시민의무감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층인

학생일수록 시민의무를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별과의 관련성을 보면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들의 정치참여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제주도 여성들이 현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 여기에서도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모든 정치태도의 구성 요소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개인이 정치에 대하여 배우는 것 중 많은 것은 공식적이고, 계획적인 통제의 밖에 있으며, 신중하게 계획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⁶⁸⁾. 이는 참여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을 기르는 정치교육은 공식적인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정치사회화의 노력이 있어야만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제주도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매체로 매스미디어를 꼽고 있었다. 오늘날 매스컴이 전해주는 정치에 대한 정보는 정치사회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매체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적인 민주적 태도를 갖도록 정치사회화의 바른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도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라 비판적인 안목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매스컴이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68) R. E. Dawson 외(1977), 전계서, 정세구역(1981), pp. 200~201.

참 고 문 헌

1. 한국문헌

<단행본>

- 김규택(1981), 「한국정치동태론」, 일조각
- 김운태 외(1985), 「한국정치론」, 박영사
- _____ (1981), 「정치학 원론」, 박영사
- 김재영(1982), 「정치사회화론」, 대왕사
- 김충남(1982),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법문사
- 안병만(1985),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 이극찬(1983), 「정치학」, 법문사
- 이동희(1986), 「정치학원론」, 일신사
- 한배호, 어수영(1987), 「한국정치문화」, 법문사
- Dawson R. E. 외(1977), 「정치 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정세구 역(1981), 법문사
- Samuel Huntington and Joan M. Nelson(1976), 「정치참여의 논리와 현실(No Easy Choice)」, 김학준 역, 일조각

<논문>

- 김범식(1988), “스포츠를 통한 정치사회화가 국민정치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석준(1998), “제주지역에서의 선거“, 「제주사회론2」, 신행철 외 지음, 한울아카데미
- 김혜숙(1998), “가족의 성격을 통해서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여성을 중심으로-“, 「제주사회론2」, 신행철 외 지음, 한울아카데미
- 노인영(1987), “중.고등학생의 정치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석(1994), “통치자의 정치정향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영호(1979), “한국 농촌의 근대화와 정치문화의 변화 :4개 부락을 중심으로”, 「논총」, 제 34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이종렬(1977), “고등학교 학생의 정치태도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전성운(1972), “한국고등학교 학생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일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정세구(1974), “초. 중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의 발달:정치신뢰와 정치효능”, 「한국교육」, 제1권 제2호
- 진덕규(1971),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상황적 제요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논총>, 제1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최충규(1983), “한국 대학생의 정치정향과 정치참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



2. 서양문헌

<단행본>

- Almond, Gabriel A. and Coleman J. S.(1960),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Almond, Gabriel A. and Verba, Si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yman, H. H.(1959),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The Free Press
- Hess, Robert D. and Torney, Judith V.(1968),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 in children*,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
- Milbrath, L. W.(1965), *Political Participation :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Chicago: Rand McNally

〈논문〉

- Campbell, D. T.(1950) "The Indirect Assessment of Social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in. No.47.
- Easton, David and Dennis, Jack(1967), "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1.
- Eugene Kim, C. I. and You, Hyong-Jin(1969), "Political Socialization in Korea:
A Polot Study.", 「한국정치학회보」 제3집
- Hwasoo Lee(1968), "A Study of Political Socialization Process: Political Efficacy
and Legitimacy", *Koreana Quarterly*, Vol.10
- Lane, R. E.(1975), "Patterns of political beliefs. In J.W. Knutson(Ed.), ",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Jossey Bass Publishers
- Massialas, Byron G.(1969)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Macmillan Company
- Nie, Norman H. and Verba, Sidney(1975), "Political Participation", *Handbooks of
Political Science*, ed. by F.I.Greenstien and Nelson W.Polsby, London:
Addison-Wesleg
- Paige, Jeffery M.(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6
- Prewitt, Kenneth (1968), "Political Efficac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ed. David Sills, New York Crowell, Collier and
Macmillian

<ABSTRACT>

An Analysis on Political Attitude with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Jeju-Do
- focusing on academic high schools -

Gang Yeo Jeong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an, Seok-Ji

This study investigates some factors of political attitude of senior students in academic high schools in Jeju-Do, such as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tizen's du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bility of political system through analysing the research data and to suggest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better political education.

For this, 628 senior students attending academic high schools in Jeju-Do were randomly selected and examined about political attitude by the means of questionnaire based on the I.S.R. questionnaire of Michigan Univ. in U.S.A. SPSSWIN program was used for the data processing. In addition, t-test and T-test were also applied to examine whether the statistical difference of background variables has any significance.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general aspect, the students had higher scores in political knowledge and citizen's duty and also had average scor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As for political trust they had the lowest ones.

The data shows that there are close relations in between gender, residence and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First, with the regard to gender, girls got higher scor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than boys. Second, there is not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residence. Third, in the respect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the students whose fathers are government officials or have professional careers or are highly educated gained high scores in political knowledge. The students whose economic status is upper class and also satisfied with their social status were high i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Political participation was scored highly in the group which has high economic status and also highly educated fathers. The students of lower class family have strong sense of citizen's duty.

According to the result of classifying the types of political attitude, the senior students of academic high schools in Jeju-Do approach to dissent political orientation.

The medium which affects most students' views on politics is firstly mass media, secondly teachers and parents for the third.

This study gives us some valuabl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real interest and active participation about politics are not high in school education, whereas the students have been well educated about political knowledge and citizen's duty. Therefore, schools need to provide students with various programmes for more active participation.

Second, since parents' socio-economic backgrounds give significant influence on all the elements of political attitude, the ideal education for politics can be achieved with the help of the political socialization involving hidden curriculum as well as official one.

Third, there should be educational efforts to make mass media help the citizens to have democratic attitude and perform the crucial and desirable part in political socialization. In addition, the education which increases critical view on the political facts heard or seen through mass media must be performed in schools in order to prevent unconditional acceptance.

For the last, the clean and capable government and the policies based on the welfare of its own people are the only thing that can improve students' political trust.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제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치태도 분석**”이라는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는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생각에 따라 앞으로의 한국정치의 모습이 규정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의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입 준비로 매우 바쁘겠지만, 끝까지 솔직하고 성의있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회교육과 과정

강 여 정 드림

※ 다음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합치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여러분께서는, 선거를 왜 실시한다고 보십니까?

- ①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므로 ② 민주정치를 한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
③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 ④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주기 위해

2.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 ① 정책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 ② 자기나라의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
- ③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을 잘 내는 사람
- ④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키는 사람

3. 여러분은 국회는 어떤 활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 ① 국민을 통제, 지배하기 위한 활동 ②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
- ③ 법률을 적용하는 활동 ④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활동

4. 현재 우리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은?

- ① 새천년민주당 ② 한나라당 ③ 자유민주연합

5.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이름은 ?

- ① 김종필 ② 이한동 ③ 한완상 ④ 박태준

6. "때때로 정치나 행정이란 너무 복잡해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7. 여러분은 성인이 되었을 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대단히 많이 ② 많이 ③ 조금 ④ 전혀 못함

8.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의견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9.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0.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1. 정부에서 일하는 국민의 이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가 낸 세금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2.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청렴결백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3.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그들을 뽑아준 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4. 여러분은 정치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보통이다
③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15. 어른들과 정치문제를 이야기하고 여쭙어 보는 일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보통이다 ③ 없는 편이다 ④ 전혀 없다

16.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등의 기사와 보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보통이다
③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17. 여러분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로 인해 친구들과 의견대립으로 다툰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있는 편이다 ③ 없는 편이다 ④ 전혀 없다

18.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질 것 같이 예상될 때는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9.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부모 중 한분 째은 투표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0. 국민들은 나라의 정치형편을 잘 모르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1. “국민들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말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2. 여러분이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갖는데 누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로 표시하십시오)

- ① 부모 () ② 교사 () ③ 매스미디어 ()
④ 동료집단 () ⑤ 기타 ()

23. 여러분의 가정의 생활정도는 ?

- ① 매우 잘산다 ② 잘 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못사는 편이다 ⑤ 매우 못산다

24. 여러분의 아버지 교육정도는?

-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 이상 ⑤ 계시지 않는다

25. 현재 여러분의 아버지 직업은

- ①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② 공무원, 교사 ③ 회사원
④ 자영업 ⑤ 기술직 ⑥ 농·어·임·축·수산업
⑦ 기타_____ ⑧ 해당없음

26. 아버지의 연령은 ?

-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⑤ 70대 이상

27. 우리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불만스럽게 느낀다 ④ 매우 불만스럽게 느낀다

28. 여러분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9. 여러분의 사는 지역은 ?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③ 남제주군 ④ 북제주군

문 항 별 분 석 결 과

문제1. 여러분께서는, 선거를 왜 실시한다고 보십니까?

		Frequency(사례수)	Valid Percent(%)
Valid	오답	180	28.7
	정답	447	71.3
	Total	627	100.0

문제2.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오답	217	34.9
	정답	405	65.1
	Total	622	100.0
Total		629	

문제3. 여러분은 국회는 어떤 활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오답	166	26.9
	정답	450	73.1
	Total	616	100.0
Total		629	

문제4. 현재 우리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은?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오답	232	37.6
	정답	385	62.4
	Total	617	100.0
Total		629	

문제5.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이름은 ?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오답	256	41.8
	정답	357	58.2
	Total	613	100.0
Total		629	

문제6. "때때로 정치나 행정이란 너무 복잡해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그렇다	197	31.5
	그런 편이다	349	55.8
	별로 그렇지 않다	55	8.8
	전혀 그렇지 않다	25	4.0
	Total	626	100.0

문제7. 여러분은 성인이 되었을 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대단히 많이	145	23.1
	많이	395	62.9
	조금	70	11.1
	전혀 못함	18	2.9
	Total	628	100.0

문제8.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의견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그렇다	234	37.3
	그런 편이다	325	51.8
	별로 그렇지 않다	64	10.2
	전혀 그렇지 않다	5	.8
	Total	628	100.0

문제9.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그렇다	190	30.5
	그렇지 않다	433	69.5
	Total	623	100.0

문제10.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된다고 보십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그렇다	147	23.6
	그런 편이다	400	64.2
	별로 그렇지 않다	72	11.6
	전혀 그렇지 않다	4	.6
	Total	623	100.0

문제11. 정부에서 일하는 국민의 이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가 낸 세금을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그렇다	244	39.0
	그런 편이다	338	54.1
	별로 그렇지 않다	39	6.2
	전혀 그렇지 않다	4	.6
	Total	625	100.0

문제12.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청렴결백하다고 보십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그렇다	381	60.8
	그런 편이다	226	36.0
	별로 그렇지 않다	17	2.7
	전혀 그렇지 않다	3	.5
	Total	627	100.0

문제13.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그들을 뽑아준 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그렇다	250	39.9
	그런 편이다	319	50.9
	별로 그렇지 않다	50	8.0
	전혀 그렇지 않다	8	1.3
	Total	627	100.0

문제14. 여러분은 정치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관심이 있다.	88	14.1
	보통이다.	204	32.6
	관심이 없는 편이다.	291	46.5
	전혀 관심이 없다	43	6.9
	Total	626	100.0

문제15. 어른들과 정치문제를 이야기하고 여쭙어 보는 일은 어느 정도입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많다	116	18.5
	보통이다	301	48.0
	없는 편이다	194	30.9
	전혀 없다	16	2.6
	Total	627	100.0

문제16. 우리 나라의 정치에 대한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등의 기사와 보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관심이 있다.	55	8.8
	보통이다.	176	28.1
	관심이 없는 편이다.	356	56.9
	전혀 관심이 없다	39	6.2
	Total	626	100.0

문제17. 여러분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로 인해 친구들과
과 의견대립으로 다툰 적이 있습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그렇다	329	52.4
	그런 편이다	242	38.5
	별로 그렇지 않다	51	8.1
	전혀 그렇지 않다	6	1.0
	Total	628	100.0

문제18.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질 것 같이 예상될 때는 투
표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그렇다	6	1.0
	그런 편이다	49	7.8
	별로 그렇지 않다	286	45.8
	전혀 그렇지 않다	284	45.4
	Total	625	100.0

문제19.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부모 중 한분 째은 투표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Frequency	Valid Percent
Valid	매우 그렇다	8	1.3
	그런 편이다	29	4.6
	별로 그렇지 않다	268	42.7
	전혀 그렇지 않다	322	51.4
	Total	627	100.0